

좋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보냅니다.  
오늘의 아침편지

★ **중간지대** ★

중간지대는  
나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공간과 시간이다.  
좀 더 서두르라고 다그치는 대신  
잘 타이르고 토닥인다. 허리도 펴고  
마음도 펴고 다리도 두드리고 머리도 주물러준다.  
나에게 이런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  
누군가는 나를 보듬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 강미영의《숨통트기》중에서 -

\* 사람 사이에도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정성스럽게 보듬는 시간과 공간,  
그가 나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시간과 공간.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지대'를 거치면 힘이 납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사랑의 힘.

보시니 참 좋았더라 / 이 그림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요

**REMEMBER 20140416**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광양사랑의교회**  
http://kysarang.org/

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로 이 땅을 덮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전국을 경험하며  
전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 속 같은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가셔서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중 하나인  
**광양사랑의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순천노회 광양남시소 소속  
설립일 : 2004.4.12  
545-881 전남 광양시 중동 1617-10번지  
http://kysarang.org / www.smileman.info  
☎ 061-793-1294(교회) / 794-7130(사택)  
담임교역자 : 웃는사람 라종렬목사 (010-5686-3626)

- **광양사랑의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광양사랑의교회의 꿈입니다
- **광양사랑의교회**는  
모든 성도가 매일 성경(성서유니온)묵상지로 매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같은말 같은마음 같은뜻 같은열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1:10)

- **광양사랑의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과 21C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시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주일오전 9시
삼일밤예배	수요일오후 7시30분
민들레주부무상모임	금요일오전 10시
목상나눔모임	나눔터별 경향시간
화요성경학교	매주화요일 오전10시

- **광양사랑의교회**가 후원하는 곳  
국제비전선교회 김경식선교사(스리랑카) SU 에스라

GwangYang SARANG Church | kysarang.org

**광양사랑의교회 이야기.**

Since 2003MCC 2007GSC 제12권15호 부활절두번째주일 2015년4월12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  
GWANGYANG SARANG CHURCH **사랑의교회** I LOVE YOU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사과해야 한다.  
상대방의 가슴에 박혀 있는 상처를 녹여내려면  
천 번 만 번 씻어내야 한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반항하다가 모진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천 번 만 번을 빌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네 잘못도 씻긴다."  
- 고도원의《혼이 담긴 시선으로》중에서 -

푸른돌밭&원만한물가  
**광양사랑의교회**  
www.kysarang.org

사랑의 전도편지

# 부활 소망 주신 예수님

여전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 풋풋한 설렘은 아니지만 아픔과 추억과 감사가 뒤섞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한때는 봄별 같이 따스한 남편이었고  
 아이들과 똑같은 개구쟁이 아빠이기도 했었지요.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청년들을 짝사랑하며 함께 꿈꾸기를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잊어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교회에서 설립18주년기념 공로상으로  
 크리스천의 본을 보이셨던 집사님들과 남편을 기억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아빠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해주신  
 교회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받은 이 귀한 헌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남편이 흐뭇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양가 부모님께  
 특별히 남편이 드리는 용돈으로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보, 사위가 주는 용돈이래요. 좋은 데 써야지. 감사헌금 해야겠다.”  
 “아니, 엄마. 이걸 사위가 용돈으로 드린 건데 사고 싶은 거 사세요.”  
 혼자 된 딸 안쓰러운 내색도 못하고 늘 애꿎던 엄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고맙다고 웃으면서도 엄마는 이내 눈가가  
 젖어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고  
 고마워하시면서 한참이나 아들을 그리워하셨지요.  
 “어머니, 은비아빠 지금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천국 가면  
 다 만나는 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다면 끊임없이 신세한탄하고 원망불평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 것을 믿습니다.  
 절망하고 한숨 쉬던 내가 죽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이,  
 걱정 근심하던 내가 죽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소망으로 기대하는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사망으로 가던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 글쓴이 장주연 ☺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 • 주일 낮 예배

주일오전 11:00

경배와 찬양	10시45분부터 찬양합니다	다같이
예배의부름	찬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기도	영광송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절만	다같이
대표기도		박형순집사
찬양	찬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같이
말씀선포	빌립보서2:19~30	
<b>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b>		
결단&합심기도	찬223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축도(강복선언)		인도자
나눔&환영		성도의교제

## 주일오후찬양예배

주일 오후2시  
코이노니아 주일

##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7:30  
묵상나눔모임

##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30  
빌립보서 강해

## • 나눔&환영 *Sharing & Welcome*

### ■ 4월 주일낮예배 대표기도자 안내 ■

1주:목회기도 / 2주:박형순집사 / 3주:박한성집사 / 4주:장경하집사

- \* 새가족 환영 :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묵상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 \* 모임안내 \_ 다음 주일 오후에는 코이노니아 주일로 모임입니다.
- \* 꼭 매일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 묵상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 기도제목
  - 서성님집사님의 딸 수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 교회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디아코노이(섬기는 사람들) 묵상나눔 모임
  - 매주 수요일 오전10~12시 본교회에서
- \* 책사랑(冊舍廊) 슬로레(Slow-Slow Reading)모임 안내
  - 매주 목·저녁, 금·오전에 진행되는 천천히 읽기 모임

